

패션모델 김동수 생애사

The Life History Of Fashion Model, Kim Dong Su

김지언, 그레이라운드
Kim, Ji-Un, *Grayround*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her values based on the life of DONG-SU KIM who has lived as a fashion model and model lead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life of participa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the oral life history research method, which is on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rom the moment of entering into fashion model to the life as glamorous fashion model, conflict and agony, the beginning and life as a model and a leader in model studies, and the active activities that continue to this day, she cast light on her values based on various life process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through oral life history method are as follows. Based on the main activities of fashion model DONG-SU KIM, the values of fashion model DONG-SU KIM can be explained by challenging spirit, effort, talent and persistence and pride. Starting from winning the USA Model Contest, she tried to establish her own unique identity and challenge spirit that showed the first Korean' overseas activities. Her willingness to overcome even in the talent and frustration reflected in her unique stage presence and her continuous self- management were able to confirm her persistence as a fashion model. I was also proud of the fashion model in her words that she wanted to hear the word 'Fashion model DONG-SU KIM' first. Based on the teaching experience of the leader in model studies DONG-SU KI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values of leader DONG-SU KIM,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sense of goal, character, the sense responsibility, judgment and progressive spirit. DONG-SU KIM expected the social status of the fashion model to improv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Department of Model Studies, which led to her decision to start as a leader. DONG-SU KIM has set up strategies based on her various experiences and aimed to train leaders, to present vision for fashion models, and to cultivate professional fashion models. In addition, in the recruitment of instructors, it was made in principle whether the instructor has an open mind about the ability, the personality of the instructor, the keen insight to see the future, and the future possibility. Through DONG-SU KIM's strategy and principles, she was able to confirm her goal consciousness and progressiveness, in addition, DONG-SU KIM's judgment ability to take charge of the future of department of model studies is outstanding. Also, in DONG-SU KIM's humble attitude for her disciples to ask for help and to fill the shortage, I could feel her humble personality,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department of model studies. Through this study, I could find out what kind of life DONG-SU KIM has lived as a fashion model and a leader of department of model studies and what values she has. Even now, the life history of DONG-SU KIM, who represents the Korean fashion model world with constant challenges and efforts, is considered to be a meaningful study as the first life history of the fashion model world.

Key words: Fashion Model, Model Leader, Life History

* 본 연구는 김지언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rlawldjs3864@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패션모델은 패션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대중매체를 통한 노출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중들에게 확고한 직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히 패션쇼와 잡지에서만 볼 수 있었던 과거의 패션모델들과는 다르게 패션모델의 영역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진희경, 이소라, 이선진, 장윤주, 이현이, 송경아, 강동원, 차승원, 김우빈, 이종석, 주우재, 남주혁 등 많은 패션모델 출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패션모델이 연기, 방송, 예능, 노래, 작곡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면서 이들을 모델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모델테이너' 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패션모델은 패션산업을 위한 단순한 도구적 존재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다. 이에 따라 패션모델의 대중적 인식은 이전보다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패션모델의 인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패션모델이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양의식, 2009). 이를 바탕으로 패션모델 양성을 위한 모델과(科) 또는 모델관련 학과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배세운, 2010 재인용). 이는 실용학문으로써 모델 교육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패션모델 산업이 급작스럽게 발전하게 된 것은 아니다. 패션모델 김동수(1957년)로 부터 그 발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패션모델'이라는 직업이 대중들에게 자리매김 하기 전부터 김동수는 국내 패션모델계의 초석을 다져왔다. 김동수는 한국인 최초 해외에서 활동한 패션모델이자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 수많은 모델활동, 방송활동, 저서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으며 2021년 현재까지도 현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4년제 모델과(科)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패션모델은 물론 모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제 9회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에서 여성 패션모델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국 패션모델계를 대표하는 김동수의 모델인생에는 그녀의 용기와 도전, 변화가 존재할 것이다. 한국인 최초로 해외활동을 시작한 도전정신과 계기, 패션모델로서의 가치관, 고난 극복 과정, 국내 최초 4년제 모델과(科) 설립 배경, 모델 지도자로서의 또 다른 삶 등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한국 패션모델계의 역사정립을 위해 그녀의 생애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패션모델로서, 모델 지도자로서 그녀가 살아온 시대의 사건들을 어떻게 함축하고 있고 그 시대에 다양한 모습의 삶이 그녀의 가치관과 관련되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김동수의 생애에는 그녀의 인생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을 것이며 그 가치관은 패션모델 또는 지도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패션모델 김동수의 생애사는 패션모델계 생애사 연구의 첫 신호탄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녀의 첫 모델 활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모델 활동들을 거쳐 현재는 모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모델 김동수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과거 패션모델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문헌자료연구와 더불어 구술 생애사 방법을 통해 참여자의 기억과 구술을 중심으로 재조명하였다. 생애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구술을 선택한 것은 연구 참여자의 입으로 확실한 사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기동, 김명권, 2008). 이는 후학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동수가 겪어왔던 삶의 과정을 패션모델과 모델 지도자, 그리고 현재까지의 활동으로 나누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패션모델 김동수의 가치관을 살펴본다.
- 2) 모델 지도자 김동수의 가치관을 살펴본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구술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질적연구의 하나인 구술사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연구로 연구 참여자의 주관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다. 개인의 삶은 바로 그 개인이 경험하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자료이기 보다 역사적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구술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담아내고 그것을 강점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주관적일수록 더 가치가 있다(윤택림, 함한희, 2006).

둘째, 문헌자료의 수집에 있어 제한성이 따른다.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와의 구술 자료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사진, 신문기사, 잡지 등의 문서자료로 이루어졌고, 각 내용에 따라 자료의 활용 방법과 비율이 다르게 사용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구술 생애사 방법을 사용하였고,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한 명

의 연구 참여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심층면담과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전사, 주제별 약호화, 아카이브구축을 거쳐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구성원 간의 검토, 동료검토를 통해 객관화가 요구되는 질적 연구의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 과정은 <표 1> 과 같이 진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주요 연보는 <표 2>와 같다.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으로는 구술 생애사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심층면담을 활용하였고, 면담은 1대 1로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이란 면담에 필요한 질문을 미리 정해놓지만 연구 참여자에 대한 추가적 질문이 가능한 면담이다. 구조화된 면담에 비해 유연성이 높지만 연구자의 개인적 감정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에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김남규, 2019). 이와 더불어 뒷받침 할 수 있는 신문기사, 인터넷 기사, 인터뷰 등 다양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연구 참여

표1. 연구 진행 과정

단계	기간	주요활동	비고
연구 계획 수립	2019년 3~4월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 선정 선행 연구 분석	
연구 참여자 선정	2019년 4월	연구 참여자 선정 사전 조사 실시	김동수
자료 수집	2019년 6~8월	심층면담 문서자료 수집	4회
자료 처리	2019년 7~9월	전사 주제별 약호화 개인 아카이브 구축	
자료 분석	2019년 7~9월	영역 분석 분류 분석	
자료의 진실성 확보	2019년 7~9월	구성원 간 검토 동료검토	
해석	2019년 9~12월	논문작성	

표 2. 연구 참여자의 주요 연보

주요 경력	1999년	동덕여자대학교 국내 최초 4년제 모델과(科) 설립.
	1999년~현재	동덕여자 대학교 모델과(科) 교수
	2007년~2017년	제1대 한국모델학회 학회장
	2012년~현재	아시아 뉴 스타 선발대회 모델협회와 공동기획
	2019년~현재	한국모델콘텐츠 학회 학회장
모델활동	1987년	LA 모델 콘테스트 3위 입상 한국인 최초 해외진출 및 활동 (밀라노, 파리, 뉴욕, 런던 등 6개국에서 활동)
	1996년~1997년	에스콰이어(아웃클래스) 전속모델.
	2002년	YAHOO MANIA DR, BAUMMANN 화장품 광고 모델
	2009년	ALLURE ALLURING WOMEN 아름다운 50대 선정
	2009년	HARPERS BAZZAR THE KOREAN SUPER MODEL26 선정
		국내의 컬렉션 1000회 이상.
		VOGUE, BAZZAR, ELLE, MARIECLAIRE, Allure 등 잡지 다수.
방송활동	1993년	MBC TV 생방송 '새 아침' MC (최초 모델출신 MC) 동아TV '김동수의 이미지업' 주 4회 단독 MC
	1995년	그 외 KBS, MBC, SBS, EBS, 종편TV 및 라디오 패션, 문화 관련 프로그램 MC 및 패널 등 다수
수상	2012년	제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2018년	제9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 수상
기획 및 연출	2000년	하우징 페어 패션쇼 기획 및 연출, 출연
	2000년	2000년 송년특집 디자이너故김영세 초청 패션쇼 기획 및 연출, 출연
	2001년	'서울 홈페어 2001' 패션쇼 기획 및 연출, 출연
	2002년	강남거리문화 축제 패션쇼 기획 및 연출
	2002년	SUAF 2002 대학로 문화축제 패션쇼 기획 및 연출
	2002년	동덕큰잔치 패션쇼 기획 및 연출
	2002년	F/W H.C.F Trand show 기획 및 연출, 출연
2017년	FFFIM 디자이너故김영세 패션쇼 기획 연출, 출연	
저서 및 특허	1993년	못생긴 톱 모델 김동수의 차밍 스킨 - 까치출판사
	1993년	성공하는 남자의 옷입기 - 까치출판사
	1995년	미운 오리 김동수 이야기 - 자유시대사
	1999년	김동수의 핸드백엔 먹을 것이 가득하다 - 푸른숲
	2000년	여자들이 가장 알고 싶은 미의 비밀 - 황금가지
	2002년	모델학 - 황금가지
	2003년	여자들이 가장 알고 싶은 다이어트 비밀 황금가지
	2005년	성공하는 여성을 위한 파워워킹 - 리즈앤북
	2014년	모델, 시대를 말하다 - 동덕여자대학교 출판부
	2014년	감정다이어트 번역 및 공저 - 대성의학사
2015년	모델론 - 형설 출판사	

자와 연구자는 사제시간으로서 충분한 라포 형성으로 인해 심층면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더 확실한 정보를 위해 심층면담 중 확실하지 않았던 단어들은 직접 물어보는 방법을 통해 인터뷰 내용과 비교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활동했던 사진들, 인터넷 기사, 연구노트 등을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음성 인터뷰는 핸드폰을 통해 녹음하여 보관하고, 녹음된 인터뷰는 전사 작업을 하여 한글파일(hwp)로 보관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 매체에 공개된 사진, 연구자가 찍은 사진 등은 JPG 파일을 통해서 보관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연구실이었으며, 면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직접 찾아가 묻거나 연구 참여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층면담

구술사의 주된 내용은 연구 참여자인 구술자와의 면담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연구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면담의 성패는 연구와 관련된 질문을 연구자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연구자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질문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 인터뷰의 진행과 방향 그리고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심층면담은 짧은 시간 내에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면담을 위해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물어볼 주제에 관련된 자료 조사, 사진, 인터넷 기사 등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구로서 가장 적합하고 좋은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와 흐름에 연구자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다(윤택림, 함한희, 2006).

면담일정은 연구 참여자와 미리 상의하여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맞추었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연구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최대한 연구 참여자의 일정과 의사에 따라 결정하였다. 최종면담이 끝난 후에는 연구 참여자에게 구술자료 공개동의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권리를 설명한 뒤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심층면담 일정

면담 일시 (장소)	면담 범위 및 내용
2019년 7월 22일 (김동수 연구실)	전반적인 생애 : 출생, 패션모델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 주된 패션모델활동에 대한 내용, 지도자로서의 입문
2019년 8월 6일 (김동수 연구실)	패션모델의 삶 : 다양한 모델 활동 경험, 패션모델로서의 가치관
2019년 8월 20일 (김동수 연구실)	모델 지도자의 삶 : 모델 지도자 김동수, 모델 지도 경험 모델 지도자로서의 가치관과 지도신념
2019년 9월 4일 (한남동 블루스퀘어 카페)	추가 인터뷰 및 이전 질문 보완

2) 관련 자료 수집

관련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만나 심층면담을 진행할 때 구술자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대화의 내용을 뒷받침 하여 다양한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문광욱, 2017). 연구를 진행하면서 김동수와 관련된 사진자료, 신문기사, 인터넷 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4. 자료 처리

자료처리는 면담 시 녹음된 파일을 전사 작업을 통해 문서화 한 후,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들끼리 묶어 분절화 하는 주제별 약호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수집된 구술 녹취록, 면담일지, 구술동의서, 사진 등의 자료들은 개인 아카이브를 구축을 통해 정리 및 보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참여자의 개인 아카이브 구축

을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핸드폰을 통해 녹음하여 보관하였고, 녹음된 인터뷰의 음성내용은 전사 작업을 통해 한글파일(hwp)로 보관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진, 신문기사 스크랩 자료, 인터넷 기사 등은 JPG 파일로 보관하였다.

5. 자료 분석

이 연구의 자료는 영역 분석(domain analysis) 및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의 두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영역 분석에서는 전사된 면담자료와 관련 자료를 계속해서 정독하고 의미 있는 자료들끼리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을 면담기록지에 기입하며 연구주제의 영역을 찾았다. 영역분석 후 거쳐야 하는 두 번째 단계는 분류 분석이다.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영역 분석에서 도출된 소주제를 포괄하는 중간 주제를 찾고, 다시 중간 주제를 포괄하는 대 주제를 찾는 방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어보고, 자료의 분류 체계를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6. 자료의 진실성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간 검토(member check)를 통해 연구 참여자와의 관련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였고, 동료검토(peerexamination)를 통해 자료의 진실성을 높였다. 또한 구술동의서와 구술자료 공개 허가를 받고, 연구 참여자가 직접 검독함으로써 윤리성을 확보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패션모델 김동수

1) 패션모델 김동수로, 해외에서의 도전과 고뇌

김동수는 타국의 외국인으로서 절대 자기 자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해왔다고 한다. 해외 활동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녀가 아플 때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었다.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본인 스스로를 통제하고 보호했다. 이러한 과정이 그녀를 성장하게 하고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김동수는 해외 활동 시절을 새로움과 호기심 그리고 불안과 긴장이 공존했던 20대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조절 능력을 터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를 제일 당혹스럽게 했던 게...서구 모델들이 날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는 거야...너 대단히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혼란스러움은 오래 가. 그래서 한 3년쯤 적응과정이 걸렸던 것 같아. 그때부터 나를 알게 된 거지. 나의 외모에 대한 개성. 그리고 나만의 것을 추구하게 됐지. 그럴 때마다 저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모델 세계는 프로들의 세계야. 빨리 인정을 하고 찾아 나가야 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나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고, 인지를 하면서 내가 좀 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된 거지. 한국인으로서의 갖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모르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 ‘김동수의 아름다움? 그럼 김동수는 어디에서 왔나? 나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름도 안 바꾼 거지.”(2019.07.22. 1차 인터뷰)

해외 활동 중 그녀를 가장 고뇌에 빠뜨렸던 것은 캐스팅을 갈 때 다국적 모델들과 브랜드 관계자들이 김동수에게 ‘아름답다’고 말할 때였다. 당시 긴 생머리와 가느다란 눈, 광대와 각진 턱선을 가졌던 자신의 외모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자부심도 없었던 김동수에게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혼란은 오

래 갔다. 자신에 대해 어떤 것도 정립되지 않았던 모델 초창기 시절, 그 말들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 혼란을 계기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보고 본인의 것이 무엇인지 찾아갔다. 냉정한 모델들의 세계에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외모에 대해 빨리 파악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김동수는 3년 동안의 고뇌를 거쳐 20대 초반 자신의 정체성과 패션모델로서 본인 고유의 아름다움을 인지했다. 패션모델로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개성은 무엇인지, 나만의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갔다. 그 과정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확립했다. 또한 해외에서 모델 활동을 시작했지만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절대 잊지 않았다. 그래서 김동수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본명 '김동수'로 활동했다. 이렇듯 그녀는 패션모델로서, 한국인으로서 김동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정체성을 파악한 것이다. 해외 활동의 첫 시작이었던 유럽에서의 활동은 고난을 통해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고난을 발판삼아 무너지지 않고 성장했던 것이다.

2) 다시 돌아온 한국, 국내 패션모델계의 지각변동

김동수는 1985년 가을, 트렁크 두 개를 들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무려 6년 만에 찾은 한국이었다. 치열하게 살아온 해외에서 그녀는 항상 자기 자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 그렇게 돌아온 한국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안식처 그 자체였다. 한국으로 들어온 후 김동수는 LA의 언론사를 통해 들었던 한국 모델 에이전시 '모델라인'을 찾아간다. 김동수는 그 곳에서 또 한 번의 문화적 충격을 받는다. 당시 한국의 톱모델들은 모두 우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키가 165~168cm로 해외 모델들에 비해 작은 편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김동수에게 생소함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한국 모델계의 발전을 위해 거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근데 모델라인을 갔더니 이재연 회장님이 나를 무대

에 딱 세우는데 달랐지. 서양식 컬렉션 위킹을 하고 내가 딱 틈새를 본 거지. 이 사람들은 다 머리도 길고 우아한데,, 당시에 내가 키가 175cm 였지. 그리고 머리를 우아함과 거리가 먼 짧은 머리. 그리고 나는 빨간 립스틱, 피부는 하얗고 깨끗하게 한 거지. …위킹은 컬렉션 위킹을 했지… 무대 장악력이 남들보다 독보적이었대.”(2019.08.06. 2차 인터뷰)

김동수는 모델라인 故이재연 회장님에 의해 국내 패션쇼 무대에 서게 된다. 그녀는 당시 국내 톱모델들과는 달랐다. 해외 활동으로 다져진 서양식 컬렉션 위킹과 175cm의 큰 키, 짧은 커트 머리, 빨간 립스틱, 깨끗한 피부표현은 당시 국내 패션모델계의 독보적 캐릭터였다. 우아하지만 정형화된 국내 모델들 사이로 김동수는 한국에도 개성 있는 모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는 당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패션모델들과는 다른 틈새를 공략했다. 당시 김동수의 등장은 신선하고 파격적이었다.

“모델들이 사이즈가 바뀌었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민윤경, 이복영, 노미성, 진희경, 박영선 이런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이 다 75이상 이 딱 됐지. 평균이 175 이상이 돼서,,, 이게 90년대 전후야. 그래서 한국 모델계가 나로 인해서 그런 계기가 딱 됐고…그게 기준이 돼서 모델들이 싹 교체가 이루어진 거지.”(2019.08.06. 2차 인터뷰)

국내 패션모델계는 김동수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바로 국내 패션모델들의 평균키가 높아진 것이다. 과거 170 cm미만의 여자 패션모델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김동수의 등장으로 여자 패션모델의 평균키는 175 cm가 되었으며 남자 패션모델의 경우 180 cm 이상으로 평균키가 높아졌다. 그 이하의 조건을 가진 패션모델들은 서서히 물러나게 되었고, 새롭게 등장하게 된 90년대 전 후 패션모델로는 민윤경, 이복영, 노미성, 진희경, 최미애, 박영선 등이 있었다. 이러한 모델들의 교체는 김동수가 새로운 모델상을 제시하였으며 패션모델로서 큰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내가 컴포지트 카드를 가져왔어. 한국에서도 깜짝 놀란 거지.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나는 그런 시스템을 배웠었으니까 가져왔던 건데,, 그게 또 새로웠던 거지.”(2019.08.06. 2차 인터뷰)

3) 못생긴 TOP MODEL 김동수

“연구자 : 패션모델을 대표해서 대중문화 예술상의 국무총리상과 작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셨는데 어떤 감정이셨을지 궁금합니다.”

“구술자 : 일단 국무총리상까지는 별 감흥이 없었어... 근데 대통령이라 생각이 딱 드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짝 되돌아보게 돼. 과연 내가 받을만한 자격이 있나. 상복이 없다고 생각을 해 온 적도 있었는데...”(2019. 08. 06. 2차 인터뷰).

김동수는 2012년 제3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2018년 제9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까지는 별 감흥이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 표창상은 감회가 새로웠다. 대통령 표창의 수상은 그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김동수는 여성 패션모델 최초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모델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닌 대중문화 발전과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상이었다. 이는 패션모델의 영역 확대를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 표창 수상을 계기로 김동수는 자신의 40년 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동수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고독함과 질투, 피나는 노력과 더불어 제자들이 있었기에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수상소감에 대해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김동수는 첫째, 4년제 대학에서 모델과(科)를 설립하여 모델의 학문적 토대를 만들어 준 대학 측에 감사함을 표했다. 둘째,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제자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고마움을 표했다. 김동수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힘든 과정을 겪지 않는 전문인은 없다고 생각했다.

4) 패션모델 김동수의 신념과 가치관

“연구자 : 패션모델로서 김동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은 무엇인가요?”

“구술자 : 솔직 하자? ‘솔직 하자’ 라는 게 객관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외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시작한 거야. 그러나 외국에서 또 다양성을 접했잖아. 거기에서 또 정체성을 확보한 거고...과거의 회로애락을 겪었기 때문에 나의 고유성이 나오는 거고.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패션과 패션 문화인으로서의 내거를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다짐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정체성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열린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모델은 문화예술인으로서 폭이 좀 넓어야 자기 것을 갖고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할 때 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또 제자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활동하고 온 사람한테 계속 현황을 물어보고. 제자한테도 배우는 거야. 나는 그게 내 장점이라고 봐.”(2019. 08. 06. 2차 인터뷰)

김동수의 모델인생에 가장 중요한 신념은 ‘솔직하자’이다. 이는 객관성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자는 의미다. 김동수는 외국에서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과거에 겪었던 회로애락을 통해 만들어진 김동수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토대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패션모델은 문화예술인으로서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폭을 넓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응용하고 이해할 때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삶에 안주하고 정체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배움의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동수는 현재에도 끊임없이 동료 패션모델이나 제자들을 통해 배우려 노력한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것을 토대로 다양성을 수용하고 표현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또한 김동수는 스스로의 끊임없는 자기관리를 통해 패션모델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현재까지도 현역에서 활동 중이다.

김동수에게 끊임없는 자기관리란 모델 활동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삶의 일부라 말한다. 또한 모든 분야의 프로들에게 이러한 과정은 필수이자 당연한 것이라 말한다. 김동수는 언제 어디서나 ‘프로’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된 삶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는 현재 까지도 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라 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동수는 패션모델이란 직업을 사랑한다. 현재 60세가 넘는 나이지만 ‘패션모델 김동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듣고 싶다고 했다.

패션모델 김동수의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동수와의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43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으며 11개의 중심의미에 따라 이들을 하위구성요소로 묶고, 최종적으로 5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패션모델 김동수의 가치관은 ‘도전정신’, ‘노력’, ‘재능’, ‘끈기’, ‘자부심’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의미단위, 주제, 범주는 <표 4>와 같다.

표 4. 김동수의 패션모델에 대한 의미 범주

의미단위	주제	범주
평장한 호기심	호기심	
새로움과 호기심이 항상 공존하던 20대였지		
두렵다는 것 보다는 설렘		
당시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설렘이 더 컸다	긍정적 긴장감	도전 정신
긴장의 연속		
새롭고 불안함	목표 의식	
목표를 크게 잡아야지만 내가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할 거 아냐		
다양성을 접했잖아		
한국에도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야	정체성 확립	노력
‘나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 컨트롤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한다		
그때부터 나를 알게 된 거지		

나만의 것을 추구하게 됐지		
나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알고, 인지를 하면서 좀 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된 거지		
한국인으로서의 갖고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모르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		
모델은 정체성을 찾아야지 돼	열정	
고독감과 질투와 피나는 노력이 있어		
응용을 해야지	자기 통제	
완벽하진 않지만 다짐을 하게 되면서		
솔직 하자		
객관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자	재능	
내 삶에서 녹아난 것들을 갖고 응용을 하자		
‘너처럼 아름다운 모델은 처음 봐’	탁월함	재능
나의 외모에 대한 개성		
컬렉션 워킹을 했지		
무대 장악력이 남들보다 독보적이었대	끈기	
한국 모델계가 나오 인해 그런 계기가 딱 됐고		
모델은 문화예술인으로서 폭이 넓어야지 정체성이라는 것도 그런 걸 토대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인내	
3년쯤의 적응과정이 걸렸던 것 같아		
나한테 주어진 삶	극복의지	
나는 좌절을 겪다가도 다시 딛고 일어 나는 오투기 같은 사람이더라고		
빨리 인정을 하고 찾아 나가야 해	지속성	
나한테 주어진 삶		
지속적인 관심과 단련		
단련에서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것	애정	자부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		
좋아야 되고 미쳐야 되고		
내 거를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쉼고		
패션모델 김동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듣고 싶어		

2. 모델 지도자 김동수

1) 국내 최초 4년제 모델과(科)의 탄생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동덕여대 보직 교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동덕여대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실용학문적인 과를 만들려고 한다. 그 중에 모델도 관심이 가는 분야다.’ 라고 왔을 때 나는 반대했지. 내가 ‘모델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미지만 보고 하는 거다. 그래서 모델은 철저하게 상품이다.’ 라고 처음에는 시니컬하게 어드바이스를 줬어.”(2019.08.22. 3차 인터뷰)

김동수는 다양한 활동을 하던 당시, 현재는 퇴임한 동덕여자대학교 보직 교수님이 김동수를 찾아왔다. 그는 ‘동덕여자대학교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실용학문 학과를 만들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모델분야에 관심이 간다.’ 라고 말했다. 김동수는 그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패션모델은 긴 시간이 필요한 직업이 아니며 이미지만으로 승부하는 세계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몇 차 미팅을 했어…첫째로 나는 자격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나는 대학 졸업장이 없다. 대학에서라면 그 기준중 하나인 학위가 나는 없다고 했더니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대한민국 전국에 모델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리서치를 했나봐…근데 그쪽에서 나한테 ‘당신은 전공과를 안 나왔으나 당신을 조사를 많이 했고 여러 군데서 복수로 당신을 추천을 하더라.’ 라고 하더라고. 국내외 경력, 특히 외국에서의 경력 그리고 한국에 와서의 경력 또 방송과 저술 등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학위에 버금가는 거라면서…”(2019. 08. 22. 3차 인터뷰)

하지만 그는 몇 번이고 김동수를 찾아왔다. 김동수의 참여와 별개로 모델과(科)를 만들 예정이었던 그는 김동수에게 지원만이라도 해 달라 요청해왔다. 하지만 김동수는 스스로가 자격이 안 된다 생각했다.

그 이유는 그녀는 대학 중퇴로 대학교수로서 갖춰야 할 기준 중 하나인 학위가 없었으며 방송과 의류사업으로 종횡무진 할 시기였다. 하지만 그는 모델과(科) 설립을 위한 김동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델과(科) 설립을 위해 의상학과, 의류직물학과, 미술관련 학과 등 다양한 곳에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다양한 과에서 김동수를 추천했다고 한다. 그는 김동수의 국내외 다양한 모델 경력, 방송 경력, 저서 출판 등의 경력이 학위에 버금가는 것이라 말했다. 그렇게 김동수는 또 한 번의 교수 제의를 받았다.

“아주 고민을 했고 면접 시 내가 물어봤어. 그때 당시 면접관이 나를 감동시킨 게 있어. ‘왜 대학에서 4년제 모델과를 만들려고 합니까?’…1990년대 후반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동덕여대같이 역사가 깊지만 작고 여자대학이다. 그런 대학에서 살아남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실용학문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다. 여성대학으로서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위한 학과가 많이 생길수도 있고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오랜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용학문인 공연예술대.’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4년제 대학에서 모델과를 만든다면 첫째 사회적인 지위 향상이 되겠다. 모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야. ‘사회적으로 모델의 지위향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굉장히 나를 고민을 하게 됐지. 그래서 내가 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 고민을 몇 날 며칠을 하게 된 거야.”(2019.08.22. 3차 인터뷰)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김동수는 대학 측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특차로 임용되었다. 김동수는 면접관에게 대학에서 4년제 모델과(科)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면접관의 대답은 그녀를 감동시켰다. 1900년대 후반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동덕여자대학교도 여성대학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실용학문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공연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몇 년간 조사를 한 결과 여러 타 대학, 타 학과에서도 김동수를 추천하여 대학에서 함께하자는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면접관의 대답으로 김동수는 지도자로서의 시작을 결심했다. 결심의 이유는 첫째, 사회적인 모델의 지위향상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둘째, 모델의 지위향상으로 학문의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모델 지도자' 김동수로의 시작과 초기 유지노력

김동수는 제자들을 위해 지도자로서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당시 모델전공의 시작으로 수많은 갈등과 모욕감을 겪었지만 김동수는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말한다. 다양한 경험으로 그녀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으며 지도자 김동수로서 그녀가 갈 길을 전략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김동수는 지도자로서 확고한 소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 그렇게 김동수는 본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수업 커리큘럼과 학생들이 무엇을 위해 모델전공에 오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했다.

“첫째 지도자 양성이다...‘의식 있는 모델이 된다.’ 그러면 대학이 있어야 되고, 또 모델과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교육열이 대단히 높은 특수상황에서는 사회적인 인지도가 올라가겠다는 판단에서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그 다음 두 번째로 모델이 비전을 제시해줘야 돼. 패션문화 양성인...패션문화 관련자들. 왜냐면 대학에서 4년을 배우니까 바로 나가서 꼭 다 모델만 되라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실제로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취직이 꽤 됐어. 놀랄 정도로. 세 번째 전문 모델 양성. 왜냐면 벌써 학원에서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춘 커리큘럼을 짜기 시작한 거지. 커리큘럼이 일단 경영, 체육, 무용, 미대 이런 타대학교의 커리큘럼을 본 거지...중간에 여러 번 바뀌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매번 커리큘럼을 짤 때는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해야 돼.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모델 그러면 워킹만 하는 줄 알아...그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공자들이 졸업한 후의 진로과정, 성장과정을 고민했을 때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고 프로그램도 짰고 그랬던 것 같아.”(2019.08.22. 3차 인터뷰)

김동수는 모델전공, 모델과(科) 유지를 통해 세 가지의 목표를 두었다. 첫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했다. ‘의식 있는 패션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이 필요하며 모델과(科)가 설립됨으로써 패션모델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둘째, 패션모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려 했다. 단순히 패션모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패션계와 관련된 패션기자, 패션 평론가, 스타일리스트, 연출, 기획 등 패션모델이 패션계에 다양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전문 패션모델 양성이었다. 모델전공의 정체성을 위해 전문 패션모델 양성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목표를 정해두고 이에 맞춰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동수는 경영, 체육, 무용, 미대 등 타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참고했다. 타 대학의 수업 커리큘럼들과 김동수가 경험해온 다양한 국제적 경험들을 토대로 학생들이 4년의 대학생활 후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김동수는 수업 커리큘럼을 위해 수많은 시간과 수정을 거쳤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워킹만 하는 패션모델’의 이미지를 깨고자 했던 그녀의 노력이었다.

“특차로 들어온 사람들이 최은선, 김지영, 박순희, 이정아, 허보미, 오미란, 정선옥 등등 당시 톱모델들. 하여간 당시 대학생 보다 나이가 조금 있지만 모델 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들이 대거 들어왔어. 내가 그거를 학교 측에다 모델과가 없다보니 대한민국에?,, 우리가 최초이다 보니 이런 경력 우대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를 해서 특차로 다 들어왔어. 물론 다 들어와서 고맙게도 너무 열심히 수업들에 임해줬어.”(2019.08.22. 3차 인터뷰)

모델전공의 생성 이후 김동수는 전공 유지를 위해 당시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었던 패션모델들을 특차로 입학시켰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전공이니 만큼 초기 모델전공의 유지를 위해선 경력이 우대한 패션모델들을 받아들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동수는 학교 측에 강력하게 건의했고, 최은선, 김지영, 박순희, 이정아, 허보미, 오미란,

정선옥 등 당시 톱모델들이 대거 입학하게 된다. 이는 김동수의 모델전공 유지를 위한 전략 중 하나였다. 김동수는 그들이 대학생이기에 나이도 많은 편이었고 특차로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임해 줌에 항상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

“학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근데 보니까 교재가 또 없어. 이게 4년제 대학에서 교재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선택의 기로에 선거야…내가 여기 전임으로 들어온 이상 학위는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교재를 막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1999년도 겸임으로 들어와서 2000년도에 전임이 되면서 2002년도에 교재가 나와.”(2019.08.22. 3차 인터뷰)

김동수는 지도자로서 학위 취득에 대한 갈등이 존재했다. 대학교수로서 갖춰야 할 기준인 학위가 없었던 김동수는 타 대학에 입학하여 학위를 수여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하지만 당시 모델전공은 국내 4년제 대학 최초였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없었다. 김동수는 학위취득과 교재제작 사이에서 갈등의 기로에 섰다. 하지만 그녀는 학위취득 보다 학생들을 위한 교재 제작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1999년도 겸임교수로 학교에 들어와 2000년도 전임교수로 그렇게 2002년 ‘모델학’ 교재가 최초로 탄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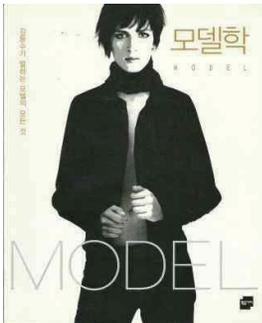
아래 사진들은 김동수가 출판한 책들로, 현재까지 모델과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책들이다.

3) 모델 지도자로서의 소신과 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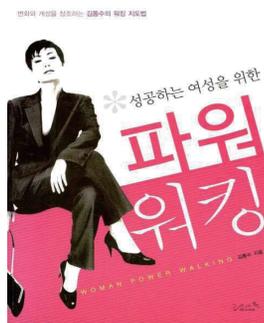
“오락을 안 나갔기 때문에. 적어도 내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켰던 것 같은데…또 원칙이 있어. 오락방송은 함부로 안 해도 모델 관련 행사는 불러주면 꼭 갔어…잘 먹지도 못 하고 피곤하고…누군가는 상징성이라도 있어줘야 하는 거거든.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줘야지 돼. 무었이던 간에 우리 학생들이던 또는 사회에서든 특히 모델 행사는 더 그렇지.”(2019.08.22. 3차 인터뷰)

김동수는 모델과(科)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오락프로그램 섭의를 모두 거절했다.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지도자로서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킨 것이다. 반면 모델 관련 행사는 꼭 참여한다. 화려해 보이는 행사의 이면은 배고픔과 피곤함의 연속이었지만 김동수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켰다. 모델 관련 행사에서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패션모델로서 상징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주자.’ 라는 김동수만의 소신이자 원칙이었다.

“모델 김동수가 현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 할지라도 대학에서는 첫 발이야. 그럼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될 뿐이 없어…그랬을 때는 내가 겸손해야 돼. 그리고 실력을 쌓아야 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특히 대한민국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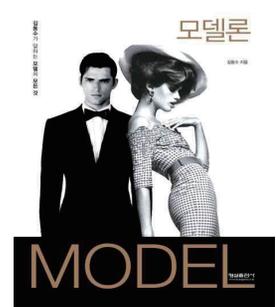
〈사진 3〉 모델학



〈사진 4〉 성공하는 여성들을 위한 파워워킹



〈사진 5〉 모델, 시대를 말하다



〈사진 6〉 모델론

텔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감히기가 쉬워. 이 생각의 틀에서.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한 노력이 알면서도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봐. 되게 중요한 내 철학이야.”(2019.08.22. 3차 인터뷰)

김동수는 패션모델로서는 자신이 전문가일지라도 지도자로서 대학에서는 첫 발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려 노력했고 실력을 쌓아야 했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려는 눈을 기르려 노력했다. 모델이라는 한 분야에 갇히지 않고 생각의 틀을 깨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철학이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지금은 우리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잘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으니 너무 뿌듯해…뭐 모델은 뿌리가 없어서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런 교수님한테도 내가 잘 참고 기다린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 길을,, 톱모델은 아니었지만 자기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제자들한테 너무 감사해.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내가 20년 전에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못 참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냐…이게 지도자로서 값진 거지.”(2019.08.22. 3차 인터뷰)

김동수는 자랑스러운 제자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톱모델은 아닐지라도 각자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모델과 초창기 시절 겪어왔던 갈등과 고뇌를 극복하지 못 했더라면, 20년 전 사표를 냈더라면, 지금은 없었을 소중한 제자들과의 추억이 지도자로서 값진 경험이라 말한다. 또한 그때의 시련을 잘 참고 견뎌낸 스스로에게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나를 이어서 정통으로 모델과를 이끌어갈 후임 제자 교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때는 특차로 들어왔지만 훗날은 석사, 박사를 다 취득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론이랑 실기하고 같이 겸비해서 지금도 용맹정진 해 나

가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또 재밌는 거는 내가 또 그들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거.”(2019.08.22. 3차 인터뷰)

또한 김동수는 자신을 이어 모델과(科)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후임 제자 교수가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 후임 제자 교수가 지도자로서 그 다음 사람을 이끌어 가면서 모델과(科)가 계속해서 유지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말한다. 과거에는 특차로 입학했던 제자들이 훗날 석,박사를 취득하고,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여 용맹정진해 나가려는 제자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했다. 이런 제자들이 있기에 김동수는 항상 즐거운 긴장감이 존재한다고 한다. 즐거운 긴장감으로 김동수는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제자들을 통해 배워간다 말한다. 김동수는 모델과(科) 대학원 운영을 통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더욱 지적인 고급인력을 키워낼 것이라 말한다.

4) 김동수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신념과 가치관)

“지도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 번 또 강조하겠지만 실력과 인성과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열린 마음…반드시 지도자는 해외경험이 있어야 돼. 우리 같은 특수한 상황에. 그리고 인성은 해외나 국내외적으로 많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에 대한 그런 상호존중? 자존심을 세울 때와 굽힐 때와 이해심 다 같이 되는 거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순발력 있게 그거를 대체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기준이긴 하지만 내가 꼭 그랬다고 나는 말을 못하지. 그거는 솔직한 얘기지. 그렇지만 그런 자세로 임하려 했다는 거.”(2019.08.22. 3차 인터뷰)

김동수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실력과 인성, 미래지향적인 열린 마음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 지도자의 해외경험이 필수적이라 말한다. 해외경험을 통해 국제적인 교류 속 실력을 쌓아갈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될 갈등을 통해 자존

심을 세울 때와 굽힐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존중, 이해심을 통해 인성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동수는 스스로가 지도자로서 그 기준에 부합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항상 세 가지의 기준을 갖추려는 자세로 임했다고 한다.

“실력은 기본이야. 다 똑같아. 실력이 최우선은 아니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과 그 자질.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그룹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두머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력과 고독감과 화합, 희생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야. 과연 내가 그걸 다 갖고 있느냐? 잘 몰라.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많이 결여돼 있을 수도 있으나 하다보니까 자꾸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게 나를 많이 짓눌렀어.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지 않았을까?”(2019.09.4. 4차 인터뷰)

또한 김동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 그룹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라 표현한다. 우두머리라는 것은 실력은 기본이며 고독감, 화합, 희생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녀의 신념은 때때로 스스로를 짓누르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김동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다양성을 수용하려고 해. 그리고 자꾸 새로운 걸 해보려고 새로운 시도를 해…나는 조금 더 나이에 비해서는 받아들여려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하려려고 하고...”(2019.09.04. 4차 인터뷰)

또한 김동수는 다양성을 수용하려 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한다. 항상 각기 다른 성향의 제자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직면하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을 수용하고 노력하며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시도한다.

모델 지도자 김동수의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동수와의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34개의 의미단위를 추출하였으며 8개의 중심의미에 따라 이들을 하위구성

요소로 묶고, 최종적으로 5개의 구성요소로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지도자 김동수의 가치관은 ‘목표의식’, ‘품성’, ‘책임감’, ‘판단력’, ‘진취성’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의미단위, 주제, 범주는 <표 5>와 같다.

표 5. 김동수의 모델 지도자에 대한 의미 범주

의미단위	주제	범주
다양한 수를 내가 경험한 거잖아	유연성	
새로운 걸 해보려고 새로운 시도를 해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력기라고 봐		
다양성을 수용하려고 해		
나는 비정형화 된 교육자라 표현하고 싶어	목표의식	
나는 전략을 짜야 돼		
원칙을 정해야 되는 거야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거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검순	
지도자로서의 나의 갈 길을 딱 정하게 된 거지		
제가 모르니 도와주십시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검순해야 돼	품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과 그 자질		
고독과 화합, 희생이 필요해		
사람과 사람에 대한 상호존중		
적어도 내 자존심과 자존감을 지켰던 것 같은데	인성	
실력을 쌓아야 돼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거지		
내가 자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		
내가 그들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거	유지 노력	책임감
받아들이려 그리고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하고		

지도자 양성			
패션모델에게 비전 제시	비전 제시		
전문 모델 양성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판단력	
미래지향적인 그런 열린 마음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순발력 있게 그것을 대체할 수 있어야	능력		
객관적인 판단			
국제적인 교류			
반드시 지도자는 해외경험이 있어야 돼			
실력은 기본이야	다양한 경험	진취성	
차별화된 경험			
특별한 경험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IV. 결론

이 연구는 패션모델과 모델 지도자로 살아가는 김동수를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여 구술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그녀의 삶을 탐색하였다. 김동수의 삶에 비취진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통해 패션모델과 모델 지도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해 왔던 그녀의 인생과 그 속의 가치관들을 면밀히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을 중심으로 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하여 패션모델 김동수의 주요 활동을 살펴본 결과 패션모델로서 김동수의 가치관은 도전정신, 노력, 재능과 끈기, 자부심이라 말할 수 있다. 생각지도 못 한 기회로 참가하게 된 미국 모델 콘테스트의 입상을 시작으로 한국인 최초 해외에서의 모델 활동을 통해 패션모델로서의 도전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던 시절 냉정한 모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김동수는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국인

으로서의 정체성 역시 놓치지 않기 위해 해외에서도 본명으로 활동했다. 해외에서 시작 한 패션모델의 길은 새로움과 호기심, 불안과 긴장이 공존했던 시기이자 고난을 발판삼아 패션모델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세계 10대 모델’이 꿈이었던 김동수의 현실은 우물 안 개구리였다. 혼자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능력과 자질은 기본이었으며 에이전시의 역할과 국력의 뒷받침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김동수는 이러한 현실에 체념하지 않았다. 큰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더욱 노력할 수 있었으며 끈기를 가지고 극복한 결과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김동수는 국내 패션모델계에 지각변동을 일으켰으며 김동수의 등장으로 모델 개인이 가진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큰 키와 넘치는 개성을 가졌던 김동수의 등장으로 국내 패션모델 키의 기준이 커졌다. 더불어 김동수만의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은 당시 국내 패션모델계에 큰 신선함이었다. 패션모델로서 김동수만이 가진 탁월한 재능과 노력의 결과였다.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못생긴 톱모델’이라는 타이틀 아래 스스로를 마케팅 하였으며 범접할 수 없는 직업처럼 느껴졌던 패션모델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좀 더 정겹고 편한 이미지로 인식시켰다.

김동수에게 ‘솔직하자’라는 것은 그녀의 모델인생에 있어 가장 큰 신념이다. 이는 객관성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자는 의미이다. 김동수는 패션모델에 대한 도전정신과 과거의 회로애락을 통해 갖춰진 김동수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그녀만이 가진 탁월한 재능, 고난 속에서도 극복하려는 강한 끈기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김동수에게 주어진 삶이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삶의 연결부분이라 하였다. 김동수는 ‘패션모델은 시대를 대표하는 미의 기준’이라 말하며 지금도 ‘패션모델 김동수’라는 말이 먼저 듣고 싶을 만큼 패션모델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하여 모델 지도자 김동수의 모델 지도 경험을 통해 그녀의 지도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목표의식, 품성, 책임감, 판단력, 진취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패션모델은 이미지로만 승부하는 세계라 생각했던 김동수는 동덕여자대학교 모델과(科) 설립을 반대했다. 그러나 김동수는 모델과(科)의 설립을 통해 패션모델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도자로서의 시작을 결심했다. 그렇게 1999년 국내 4년제 대학 최초로 동덕여자대학교 모델과(科)가 탄생하게 되었다.

모델 지도자로서의 첫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모든 것이 서툴렀고, 새로운 과의 탄생은 타과에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다. 타과 교수님들의 무시와 소외감 속 김동수는 제자들을 위해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김동수는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전략을 세웠고 지도자 양성, 패션모델을 위한 비전 제시, 전문 패션모델 양성을 목표로 수업 커리큘럼을 제작, 운영했다.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서도 김동수는 그녀만의 원칙이 있다. 실력은 기본이며 강사의 인성, 미래를 볼 줄 아는 혜안, 미래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였다. 이러한 김동수의 전략과 원칙을 통해 그녀의 목표의식과 진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지도자로서 과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한 객관적 선택이자 김동수의 판단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겸손한 그녀의 품성과 과의 유지를 위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20년 동안 모델과(科)를 유지할 수 있었다. 모델과(科)의 유지는 김동수가 지닌 큰 책임감이자 더욱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김동수에게 있어 모델과(科) 운영은 자신의 역할이자 책임이며 훗날에는 자신을 이어 제자들이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수의 연구년인 2019년에도 유럽 각지를 방문하여 패션모델과 모델 지도자로서 다양한 영감과 시각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을 보냈다. 김동수는 패션모델과 모델 지도자로서 끊임 없는 노력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다. 패션모델로서 다

양한 활동을 통해 패션모델의 지위 향상은 물론 모델 지도자로서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하였으며 아직도 배움의 과정을 멈추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패션모델이자 모델 지도자이다. 우리는 김동수의 이러한 삶을 통해 그녀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헌신과 노력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남규(2019). **테니스인 이종훈의 생애사**. 강원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1**. 서울 : 문음사.
- 문광옥(2017). **탁구인 윤길중의 생애사**. 강원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박기동, 김명권(2008). 체육사 연구방법으로서의 구술사의 적용과 그 의의. **한국체육사학회지**, 13(2), 51-64
- 박휴용(2014). **초보 연구자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전북 :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배세윤(2010). **패션모델 교육과정분석과 미래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의식(2009). **패션모델의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 박영사.
- 윤택림, 함한희(2006).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기호(2014). **배구지도자 김춘범의 생애사**. 강원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2014). **국내 패션모델의 활동 특성 및 만족도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더블유코리아(2018, 10, 15). https://1boon.kakao.com/wkorea/5bc435f1709b53_0001a34009

국문초록

이 연구는 패션모델과 모델 지도자로서 살아온 김동수의 삶을 바탕으로 그녀의 가치관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구술 생애사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패션모델로 입문하게 된 계기부터 화려한 패션모델로서의 삶, 갈등과 고뇌, 모델과(科) 지도자로서의 시작과 삶,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활발한 활동까지 다양한 그녀의 삶의 과정을 바탕으로 그녀의 가치관을 조명하였다. 구술 생애사 방법을 통하여 들여다 본 결론은 다음과 같다. 패션모델 김동수의 주요 활동을 바탕으로 패션모델 김동수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도전정신, 노력, 재능과 끈기, 자부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 모델 콘테스트의 입상을 시작으로 한국인 최초 해외에서의 활동을 보여준 도전정신과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에서 비취지는 재능과 좌절 속에서도 극복하려는 의지와 지속적인 자기관리는 패션모델로서 그녀의 끈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패션모델 김동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듣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서 패션모델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모델 지도자 김동수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자 김동수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목표의식, 품성, 책임감, 판단력, 진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동수는 모델과(科) 설립을 통해 패션모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대하였고 이는 모델 지도자로서의 시작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김동수는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전략을 세웠으며 지도자 양성, 패션모델을 위한 비전 제시, 전문 패션모델 양성을 목표로 두었다. 또한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서도 실력, 강사의 인성, 미래를 볼 줄 아는 혜안, 미래 가능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김동수의 전략과 원칙을 통해 그녀의 목표 의식과 진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모델 지도자로서 모델과(科)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한 김동수의 판단력이 돋보인다. 또한 제자들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요청하고 부족함을 채우려는 김동수의 모습에서 겸손한 그녀의 품성과 모델과 유지를 위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김동수가 패션모델과 모델 지도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한국 패션모델계를 대표하는 김동수의 생애사는 패션모델계의 첫 생애사로서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주제어 : 패션모델, 모델지도자, 생애사

논문투고일: 2021. 10. 21.

논문심사일: 2021. 11. 24.

심사완료일: 2021. 12. 08.